



2012년 7월 26일(목)

□ 미국 경제 동향

- 1) 6월중 신규주택매매 2년래 최저치 기록
- 2) 6월중 내구재 주문 2개월 연속 증가
- 3) 7월 셋째주 신규실업수당 신청건수 예상외 감소
- 4) 옥수수 가격 폭등, 애그플레이션 가능성 확대

□ 해외 경제 동향

- 1) 골드만삭스 짐 오닐 CEO, 유로존 붕괴 경고
- 2) 시티그룹, 그리스 18개월내 유로존 이탈 가능성 경고

□ 산업·시장 동향

- 1) JD파워, 가아 옵티마·쏘울 상품성 1위 선정
- 2) 프랑스 산업장관, 한국차 불공정 노골적 비난
- 3) 도요타, 2년만에 세계 판매 1위 탈환

□ 미국 경제 동향

1) 6월중 신규주택매매 2년래 최저치 기록

- 지난 7월25일(현지시간) 미상무부는 지난 6월중 신규 주택매매가 전월대비 8.4% 하락한 35만 채를 나타냈다고 발표
 - 이는 지난 1월 이후 최저치로 문가 전망치는 37만2천 채를 하외
 - 신규 주택매매 3개월 평균치는 36만3,333채로 전월의 36만4천 채에서 소폭 하락
 - 지역별로는 동북쪽 지역에서 신규 주택매매가 60% 감소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침
- 전문가들은 주택 가격과 모기지 이자율은 낮아졌지만 고용시장의 회복세 둔화가 신규 주택매매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2) 6월중 내구재 주문 2개월 연속 증가

- 지난 7월36일(현지시간) 미 상무부는 지난 6월중 내구재주문이 전월대비 1.6% 증가했다고 발표
 - 이는 5월중 1.6% 증가와 같은 수준으로 전문가 예상치 0.4% 증가를 크게 상회하는 결과
 - 5월 증감율도 종전 1.3% 증가에서 1.6%로 상향 조정
-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항공기와 군수용품 수요가 증가한 것에 따른 것으로 경기 부진에 기업들의 제품 소비수요는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
 - 일부 전문가들은 제조업 부문이 다소 둔화되고 있다며 글로벌 수요가 취약해지며 수출이 둔화되고 있고 기업들의 투자도 재정절벽 우려로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

3) 7월 셋째주 신규실업수당 신청건수 예상외 감소

- 지난 7월26일(현지시간) 미노동부는 7월 셋째주(7/16-7/21)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3만5천 건 감소한 35만3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
 - 이는 금년 들어 최대의 주간 감소폭으로 전문가들은 37만8천 건을 예상한바 있음
- 전문가들은 자동차 회사들은 매월 7월마다 설비 교체를 위해 공장을 폐쇄해 일시적으로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경향이 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 같은 경향이 줄고 있다고 분석

4) 옥수수 가격 폭등, 애그플레이션 가능성 확대

- 지난 7월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옥수수 가격이 가뭄으로 인해 재앙적인 수준으로 폭등, 소고기 및 돼지고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보도
 - 세계 곡물시장에서 금년 들어 옥수수 가격은 40%나 급등한바 있음
- 육가공업체 관계자들은 최근 쇠고기 가격이 너무 비싸진 데다 돼지고기도 이보다 덜하지 않고, 닭고기 가격도 이 같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
 - 금년 옥수수 작황량이 전년대비 에이커(0.4ha) 당 130~140부셀 가량 적을 것으로 추산, 옥수수를 주요 식량으로 삼는 돼지 및 소 등 가축의 가격도 전년비 10% 가량 오른 두 자리 수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

□ 해외 경제 동향

1) 골드만삭스 짐 오닐 CEO, 유로존 붕괴 경고

- 지난 7월25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 짐 오닐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유로존이 위험 단계에 도달했으며 위기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기간이 2년 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

- 그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여름을 심각한 일 없이 지날 지 알 수 없다고 주장

o 또한 유로존 정책 담당자들이 결단을 내리는데 실패하면서 유로의 토대인 유럽통화공동체(EMU)가 서서히 기능을 상실했다고 지적

2) 시티그룹, 그리스 18개월내 유로존 이탈 가능성 경고

o 지난 7월26일(현지시간) 씨티그룹은 그리스가 12~18개월 안에 유로존을 이탈할 가능성이 이전 예상치 50~75% 보다 상승한 90%에 이를 것으로 전망

- 향후 6~9개월 안에 그리스가 유로화 사용 17개국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오는 2013년 1월1일부로 그리스의 이탈(Greece Exit)이 벌어질 수 있다고 예상

o 시티그룹은 유럽 주변국에서 경제 위기와 금융시장 압력이 길어지면서 유로존으로 확산, 올해와 내년에 유로존이 경기후퇴(recession)에 다시 진입하게 될 것이란 예상에 기반을 두어 이 같은 확률을 가정했다고 설명

□ 산업·시장 동향

1) JD파워, 가아 옵티마·쏘울 상품성 1위 선정

o 지난 7월 25일(현지시간) JD파워는 승용차 등급별 상품성 평가 조사 결과에서 옵티마를 중형 승용차 부문에서 폭스바겐의 파사트와 함께 공동 1위로 선정

- JD파워의 상품성 평가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새 자동차를 구입해 90일 이상 운행한 소비자 7만4천 여명을 대상으로 조사, 조사 항목은 80여 개로 차량 등급별로 순위가 매겨짐

o 한편 쏘울은 소형 다목적 승용차 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음

- 쏘울은 토요타 프리우스 V와 싸이언 xB, 닛산 큐브 등을 누르고 소형 다목적 승용차 부문에서 상품성 평가 1위를 차지, 소형 다목적 승용차 부문에서 원조인 일본차를 밀어내는 성과를 거둠

2) 프랑스 산업장관, 한국차 불공정 노골적 비난

- 지난 7월25일(현지시간) 아르노 몽트부르 프랑스 산업부총장관은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프랑스 자동차산업 지원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국차 수입이 불공정 경쟁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비난
 - 그는 프랑스가 한국 자동차 회사들과 불공정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소형디젤차 등의 경우 (한국산) 수입이 1년간 1,000%나 증가했다고 주장
 - 이에 따라 과거 미국, 러시아 철강제품에 적용했던 것과 같은 제한 조항을 일정 시점이 되면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전문가들은 실제 유럽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자동차산업의 불황은 과잉설비와 노동시장 경직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에 따른 것이고, 또 최근 유럽에서 한국차 판매가 증가했지만 대부분 유럽 생산물량이란 점에서 프랑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평가

3) 도요타, 2년 만에 세계 판매 1위 탈환

- 지난 7월26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도요타가 금년 상반기 전세계 자동차 판매 대수가 전년동기비 34% 증가한 497만대를 기록,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독일 폭스바겐(VW)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고 보도
 - 도요타는 지난해 가을 중형 세단 캠리를 전면 개선해 북미 시장을 공략했고,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시장에도 신형 다목적차량 IMV을 선보여 점유율을 크게 늘려 온바 있음
- 한편 도요타는 지난해 동일본 대지진으로 부품 공급망이 훼손되면서 감산을 실시, 세계 판매 3위를 기록한바 있음